

◆ 11년 9월 고2 24~26번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의 발생으로 아담 스미스 중심의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자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었다. 당시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재고가 쌓이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이 경제 침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것이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다. ‘유효수요이론’이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수요,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구매력이 뒷받침 되는 수요가 공급 및 고용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케인즈는 세계 대공황의 원인이 이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이것은 노동자의 감원으로 이어지며, 구매력을 감소시켜 경제의 악순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와 기업이 소비 및 투자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가 없는 생산은 공급 과다 및 실업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공황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절약은 분명 권장되어야 할 미덕이지만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와 공황을 불러올 경우, 절약은 오히려 악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케인즈는 민간의 소비나 투자가 여력이 없다면 정부가 대규모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정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불황을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케인즈 이론이 수용되면서 점차 안정되어 가던 경제 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된다.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물가와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인 시장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등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고전학과 경제학의 명맥을 유지해 오던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반대하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의 회복을 주장하였다.

24. 위 글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표제와 부제는?

- ①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된 경제학자
- 수요공급이론의 효과 및 의의
- ② 시장과 정부의 끝나지 않은 경쟁
-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 ③ 불황에 대처하는 실물 경제의 특징
-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소비 방법
- ④ 경제 상황에 따른 경제학자들의 처방
- 사회 변화에 따른 경제학의 변천 과정
- ⑤ 시대를 앞선 경제학자들의 몰락과 부활
- 경제학사로 살펴보는 세계 근현대사

25. 유효수요이론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재물은 우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퍼내면 늘 물이 가득하지만 길어내기를 그만두면 물이 말라버림과 같다. 따라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로 인해 여인의 기술이 폐쇄해졌다. 이치러진 그릇을 사용하기를 꺼리지 않고, 기교를 부린 물건을 숭상하지 않아 나라에는 공장(工匠)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형편없고, 그러므로 기술이 사라졌다. 더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은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 박제가, 「시정(市井)」에서 -

- ① 절약을 권장하면 우물의 물은 항상 가득 차 있겠군.
- ② 경기 침체는 이치러진 그릇을 계속 사용하는 데서 비롯되었겠군.
- ③ 소비가 위축된 원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만드는 여인 때문이었겠군.
- ④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사농공상 모두가 곤궁해지겠군.
- ⑤ 정부의 대규모 지출은 기교를 부린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겠군.

2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정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했다.
- ② ㉡과 ㉢은 동일한 경제 현상 때문에 등장했다.
- ③ ㉡과 달리, ㉢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조절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 달리, ㉡은 경기 침체의 원인을 공급에서 찾고 있다.
- ⑤ ㉠~㉢은 경제 이론들이 규칙적인 주기에 따라 순환됨을 보여준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나라의 경제 활동 또는 경제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산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 국가의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의 특성, 장·단기적 발전 가능성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교 가능한 지표들 중 한 국가의 생산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국내총생산, 국내순생산, 국민총생산이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의 금전적 가치를 합한 것으로,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한다. 국내총생산의 ‘생산(P, product)’이란 생산량의 ‘부가 가치’의 총합을 말한다. 부가 가치란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에서 중간에 쓰인 투입량을 뺀 가치이다. 빵을 파는 제과점의 1년 매출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달걀 등 각종 재료와 연료, 전기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간 투입물을 사는 데에 2,000만 원이 들었다면 제과점

[A]은 결국 1,000만 원의 가치만 부가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중간 투입물의 가치를 빼지 않고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을 더하면 어떤 부분은 중복 계산되어 실제 생산량이 크게 부풀려진다. 제과점 주인이 방앗간에서 생산한 밀가루를 샀으므로 제과점과 방앗간의 생산량을 그대로 더하면 밀가루 가격이 두 번 계산되는 셈이다. 또 방앗간 주인이 농부에게서 밀을 샀으므로 제과점, 방앗간의 생산량에 농부의 생산량까지 보태면 밀의 가격은 세 번 계산된다. 그래서 부가된 가치만을 더해야 제대로 된 생산량이 나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총(G, gross)’은 무슨 뜻일까? 생산량을 계산할 때,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본재가 소비되면서 하락한 가치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시 제과점을 예로 들면 오븐, 반죽기 등이 자본재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기계는 밀가루와 달리 생산물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어 경제적 가치가 ① 떨어진다. 이를 가리켜 감가상각이라 한다. 국내총생산에서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뺀 것을 ‘국내순생산(NDP, net domestic product)’이라고 부른다. 국내순생산은 생산에 필요한 중간 투입물과 감가상각을 모두 빼고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를 국내총생산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러나 보통 국내순생산보다 국내총생산을 더 많이 쓰는 이유는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내총생산의 ‘국내(D, domestic)’는 무슨 뜻일까? 여기서 국내는 한 나라의 국경 안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있는 생산자가 그 나라의 국민이나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모든 생산자가 자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외국에 공장을 지어 생산하는 기업도 많고, 외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일하는 사람도 많다.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의 기업이 생산한 생산량 전체는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자국 기업은 외국에 많이 진출하지 않은 캐나다, 브라질, 인도의 경우는 국내총생산이 국민총생산보다 더 크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보다 외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더 많은 스웨덴, 스위스는 국민총생

산이 국내총생산보다 더 크다.

보통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총생산(GNP)보다 더 자주 쓰인다. 단기적으로 볼 때 한 나라 안의 생산 활동 수준을 더 정확히 알려 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가 갖는 장기적 저력을 측정하기에는 국민총생산이 더 효과적이다.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생산량이 그 나라의 지속적인 생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이웃 나라보다 국민총생산이나 국내총생산이 더 크다고 할 때, 단순히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생산적인지를 알고 싶다면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을 1인당 생산량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은 일부의 생산량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급농이나 주부의 가사 노동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급농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대부분을 자체 소비하고 시장에 내다팔지 않아서 그들의 농산물은 총생산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부의 가사 노동은 시장 밖에서 생산될 뿐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내총생산이나 국민총생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여 경제 활동을 살펴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8. 밑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감가상각’을 산출하는 다양한 방법
- ② ‘국민 1인당 생산량’을 살펴야 하는 이유
- ③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의 구체적 의미
- ④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의 한계
- ⑤ ‘국민총생산(GNP)’과 ‘국내총생산(GDP)’의 차이점

39.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국가는 빵 한 가지만을 최종 생산물로 하는 나라로, 각 생산자의 최종 생산량을 매출액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생산자:	농부 (밀)	→ 방앗간 주인 (밀가루)	→ 제과점 주인 (빵)
매출액:	7억 원	12억 원	20억 원

※ 단, 농부는 중간 투입물 없이 밀을 생산하고,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간 투입물은 밀가루 하나라고 가정한다.

	부가 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한 생산자	국내총생산
①	농부	20억 원
②	방앗간 주인	39억 원
③	방앗간 주인	13억 원
④	제과점 주인	20억 원
⑤	제과점 주인	39억 원

40.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② 생산량의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 ③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 ④ 생산물이 거래되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 ⑤ 생산량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지표 산출 기간: 1년>

	A국	B국
국내총생산(GDP)	180조 원	210조 원
국내순생산(NDP)	170조 원	180조 원
국민총생산(GNP)	210조 원	180조 원

※ 단, A국과 B국의 인구 및 국경 내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생산량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① 자본재의 감가상각은 B국이 더 크다.
- ② 국민총생산의 1인당 생산량은 A국이 더 많다.
- ③ 한 나라 국경 안의 부가 가치 총합은 B국이 더 크다.
- ④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저력이 더 높게 평가되는 국가는 B국이다.
- ⑤ 외국에 사는 자국민과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생산량이 더 많은 국가는 A국이다.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타락의 길로 떨어졌다.
- ② 연일 주가가 떨어져서 큰일이다.
- ③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고생을 하였다.
- ④ 식당과 본관 건물은 서로 떨어져 있다.
- ⑤ 드디어 우리에게도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으로,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서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테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지수가 115라면 이는 기준 시점보다 물가 수준이 1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구한다.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지수부터 구하게 되는데, 가격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단순물가지수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물가지수로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격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체감 물가에 근접한 결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지수에 곱한 후 합하여 얻어지는 값을 가중물가지수라고 한다. 가중물가지수는 거래 비중이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도록 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물가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 먼저,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하여 상승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수요 감소로 하락한다.

또한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의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T년도)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가 이용된다. 현재의 금액을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 비율로 나누어 과거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다.

$$T\text{년도 금액} = \text{현재 금액} \div \frac{\text{현재 물가지수}}{T\text{년도 물가지수}}$$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데, 원래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 명목 가치에, 환산하여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 금액'은 실질 가치에 해당한다.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다. 이때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현실로 다가오지만 기업에게는

생산원가의 직접적인 인상 요인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철관 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 생산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경유는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보다 훨씬 크다. 반면, 채소는 가계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커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생산자물가지수에서보다 크다. 이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가중치가 큰 데 비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가계 소비 지출액 기준이므로 소비 지출액이 큰 품목의 가중치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두 지수에서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다 보니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나타내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앞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단계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의 소매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된다.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는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되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는 몇 차례의 가공 단계를 거쳐 소비재로 만들어진 후에야 그 영향이 도달하게 되므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앞서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즉, 생산자물가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서 생산자물가지수를 이해하기도 한다.

39.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물가와 물가지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②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③ 물가지수의 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물가지수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⑤ 물가지수와 경기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9.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군.
- ② 물가지수는 시장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 ③ 명목 가치에서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실질 가치를 구할 수 있군.
- ④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같은 소득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겠군.
- ⑤ 현재의 금액을 과거의 금액으로 환산할 때 현재 물가지수가 과거 물가지수보다 높을수록 환산된 금액이 적어지겠군.

40.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가지수를 이용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 ② 소비자와 생산자의 입장에 따라 실질 가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르다.
- ③ 소비자와 생산자로 대상을 분류하면 보다 쉽게 물가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 ④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과 생산자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은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의 변화를 판단할 수 없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래 표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 기준 시점 대비 각 품목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자료이다.			
구분	A	B	C
가격지수	104	110	110
가중치	0.6	0.3	0.1

- ① 품목별 소비 지출액은 A>B>C의 순으로 나타난다.
- ② 단순물가지수를 사용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8이다.
- ③ 단순물가지수에서는 B와 C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전제한다.
- ④ 단순물가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가중물가지수를 사용할 때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 ⑤ 가중물가지수를 사용하면 거래 비중이 큰 A의 가격 변동이 물가지수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 소식입니다. 올 여름 자연 재해로 인해 농작물의 작황이 나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 ○○ 경제 뉴스 -

- ①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 ② 다른 조사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다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 ③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므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생산자물가지수에 곧바로 파급될 것이다.
- ④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의 가중치는 다르기 때문에 두 지수의 변동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⑤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의 가격은 소비자 구입 단계의 가격보다 낮으므로 생산자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을 것이다.

◆ 14년 10월 고3 B형 27~30번

[27~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30년대 대공황 상황에서 케인스는 당시 영국과 미국에 만연한 실업의 원인을 총수요의 부족이라고 보았다. 그는 총수요가 증가하면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촉진되고 가계의 소득이 늘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케인스는 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총수요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의 소비에 주목하였고, 소비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케인스는 절대소득가설을 내세워,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없더라도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소비인 기초소비가 존재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비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절대소득가설은 1950년대까지 대표적인 소비결정이론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쿠즈네츠는 절대소득가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쿠즈네츠는, 미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각 가계의 실제 소비 행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절대소득가설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리드만은 소비는 장기적인 기대소득으로서의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 항상소득가설을 내세웠다. 프리드만은 실제로 측정되는 소득을 실제소득이라고 하고,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항상소득이란 평생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매기 평균 또는 장기적 평균 소득이다. 임시소득은 장기적으로 예견되지 않은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양(+)일 수도, 음(-)일 수도 있다. 프리드만은 소비가 임시소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오직 항상소득에만 의존한다고 보았으며, 임시소득의 대부분은 저축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월급과 같이 자신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고려하여 소비를 하지, 예상치 못한 복권 당첨이나 주가 하락에 의한 손실을 고려하여 소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상소득가설을 바탕으로 프리드만은 쿠즈네츠가 발견한 현상을, 단기적인 소득의 증가는 임시소득이 증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 단기적인 재정 정책보다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정부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여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른 소비 진작을 기대한다 해도 가계는 일시적인 소득의 증가를 항상소득의 증가로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2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들의 개념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가설들의 향후 발전 양상을 예측하고 있다.
- ③ 대립되는 가설의 장점을 설명한 후 절충점을 끌어내고 있다.
- ④ 특정한 가설의 한계를 제시한 후 새로운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특정한 가설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케인스는 소득이 없어도 기초소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② 케인스는 대공황 상황에서 총수요를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 ③ 쿠즈네츠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소비 행위를 분석하였다.
- ④ 프리드만은 쿠즈네츠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가설을 내놓았다.
- ⑤ 케인스는 가계가 미래의 소득을 예측하여 소비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29. <보기>를 ㉠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정년 때까지 ㉠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회사원 김 씨는 운 좋게 ㉢ 경품 행사에서 당첨되어 큰돈을 받았다. 그렇다고 지난달에 비해 ㉡ 씹씀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 ① ㉠은 김 씨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항상소득에 해당한다.
- ② ㉢은 양(+)의 임시소득에 해당한다.
- ③ ㉡은 항상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은 김 씨의 실제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⑤ ㉠과 ㉢은 김 씨의 실제소득에 포함된다.

30. ㉡의 이유를 프리드만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현재 소득에 영향을 주어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다.
- ② 단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임시소득이 증가하여 가계가 소비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 ③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저소득층의 임시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항상소득이 증가하여 가계가 소비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 ⑤ 장기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임시소득에 영향을 미쳐 실제 소득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 13년 11월 고2 A형 18~21번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요인들과 소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소비이론이라고 ㉠ 부른다. 케인즈는 현재 얻고 있는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절대소득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현재 소득 중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이 소비를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여 현실의 소비행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프리드만은 처분가능소득을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비성향을 설명하는 항상소득이론을 제시했다. 항상소득은 정기적 소득을, 일시소득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긴 소득을 뜻한다.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가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불황기에 일시소득이 감소하더라도 항상소득이 일정하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얻을 소득을 기대하고 종전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호황기에 항상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시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저축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일시소득의 변동에 따라서는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지만, 항상소득의 변화로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늘어난 소득 대부분을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항상소득이론은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를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항상소득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딜리아니 등이 제시한 생애주기 이론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가졌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생애주기이론은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 변화 양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소득이론과 차이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이를 모두 소비하기보다는 청년기의 빚을 갚고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게 된다. 또한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지만 중·장년기에 저축한 돈으로 종전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생애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소비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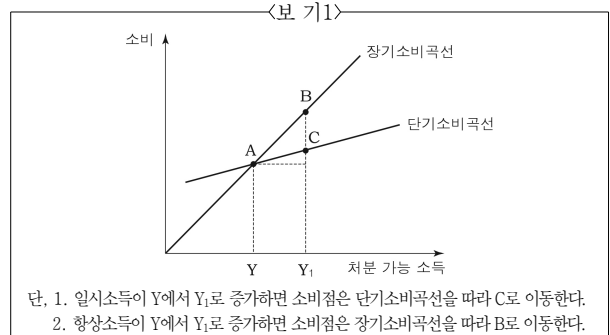
항상소득이론과 생애주기이론은 케인즈의 소비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소비가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론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소비성향: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율을 말하는 것.

18. 밑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이론의 차이점을 부각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9. <보기1>은 항상소득이론에 따른 소비성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밑글과 <보기1>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2>
- ㄱ.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이 모두 Y에서 Y₁로 증가했을 때 소비의 증가 폭은 항상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일시소득이 증가한 경우보다 크다.
 - ㄴ. 소비점이 A에서 B로, A에서 C로 각각 다르게 이동하는 것은 소득의 종류에 따른 결과이다.
 - ㄷ. 불황기라도 항상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점은 A에서 B로 이동하기보다는 A에서 C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 ㄹ. 일시소득이 Y에서 Y₁로 증가할 때 소비점이 A에서 B로 이동하지 않고, A에서 C로 이동하는 이유는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밑글을 이해한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올해부터 ‘갑’은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급이 이전보다 30만 원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늘리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의 최근 영업 실적이 좋아져 100만 원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중 20만 원을 소비에 사용하고 80만 원은 저축하였다.
 - 유명한 배우인 ‘을’은 현재 은퇴한 상태로 소득이 거의 없다. 얼마 전 그는 TV에 출연하여, 무명배우로 지냈던 청년 시절과 연기력을 인정받아 많은 돈을 벌게 된 중년 시절의 삶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의 소비수준이 무명배우였던 청년 시절부터 은퇴한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 ① 절대소득이론으로는 처분가능소득이 낮았던 ‘을’의 청년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의 소비수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겠군.
- ② 생애주기이론으로는 ‘을’의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의 소비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겠군.
- ③ 생애주기이론을 참고할 때, ‘을’이 중년 시절에 소비수준을 크게 높이지 않았던 것은 은퇴 이후의 소비를 고려한 행위이겠군.
- ④ 항상소득이론을 참고할 때, ‘갑’이 보너스로 받은 돈을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것은 보너스를 일시소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로군.
- ⑤ 항상소득이론을 참고할 때, ‘갑’이 승진을 통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늘리지 않은 것은 꾸준한 소득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이로군.

21. 밑줄 친 단어 중, ㉠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 손님을 잔치에 부른다.
- ㉡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 ㉢ 그 가게는 값을 비싸게 부른다.
- ㉣ 소란스러운 거리에서 그녀를 부른다.
- ㉤ 이 문화재를 청동사자상이라고 부른다.